

투데이 칼럼

디스토피아(dystopia)

우리나라 대학교 현황을 보면 일반 대학교 및 교육대학이 193개, 전문대학이 132개로 총 3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대학에 철학과가 있는 대학은 30여개에 불과합니다. 간단히 말해 취업 등 장래가 없고 '돈벌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발전과 함께 철학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추전국시대의 중국, 이 때에는 철학(philosophy)이 모든 학문의 으뜸이었고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석학은 반드시 철학을 수강, 연구해야 했습니다. 한 예로 의학박사는 영어로 'Philosophia Doctor'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흐름에 이런 철학적 요소는 사라져가고 있지

'돈'만이 최고가치 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가치의 평가요소 1위가 '돈'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너무나 기형적 의식입니다. 미주, 유럽등 대부분 선진국민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족'에서 부터 자유, 평등, 정의, 책임감,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개인의 행복인데 비하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금주의(拜金主義)의 식은 급기야 '어떤 수단 방법을 막론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차지하면 된다'는 패러다임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부정의식의 확산을 디스토피아(dystopia)라 하는데 이는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극단화되어 초래할지도 모르는 암울한 미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철학은 무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권력을 쥔 자,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법과 부정을 쉽게 하고 돈을 더 밝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디스토피아 세상을 만듭니다. 공산주의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미얀마, 방글라데시, 기타 세계 많은 중후진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인류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가치의 총체, 즉 철학이 사라져가는 세상, 그 생각의 중심이 '돈'이 되는 세상,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만 평가되는 현실, 어쩔 수 없는 일로 보기에선 지나쳐도 너무 치나친 상황입니다. 많은 돈이 없어도가족과 함께 무리없는 삶,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는데 말입니다.



홍 민 기
수필가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11호 태풍 '버들'에 대비해 정박한 中 선박들



12일(현지 시간) 중국 푸젠성 사면항에 선박들이 제11호 태풍 '버들'의 접근에 대비해 정박해 있다.

폭포수로 식히는 무더위



12일(현지 시간) 미 뉴햄프셔주 노스콘웨이의 인기 피서지인 다이애나 베스에서 한 여성이 폭포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설

사진으로 그리는 하천 이야기

'사진으로 그리는 감성' 제5회 전시회가 8월 2일부터 7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 차오름 1실에서 열렸다. 주제는 '흐름의 결·감성으로 짓는 하천 이야기'다. 하천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통로를 넘어, 생명의 맥박이 이어지고 시간의 결이 스며드는 공간이다. 사진은 창나의 빛과 형상을 포착하지만, 그 이면에는 멈추지 않는 흐름의 시간과 이야기들이 감겨 있다. 작가들은 인공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하천에서 감성의 미세한 떨림을 포착해 낸다. 이번 '사진으로 그리는 감성' 제5회 전시는 "지역하천"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20인의 사진작가가 포착한 시선과 감각의 결을 한 자리에 모았다. 또한 자연 소재를 중심으로 작업해 온 조형작가의 설치작품이 함께 구성되어, 정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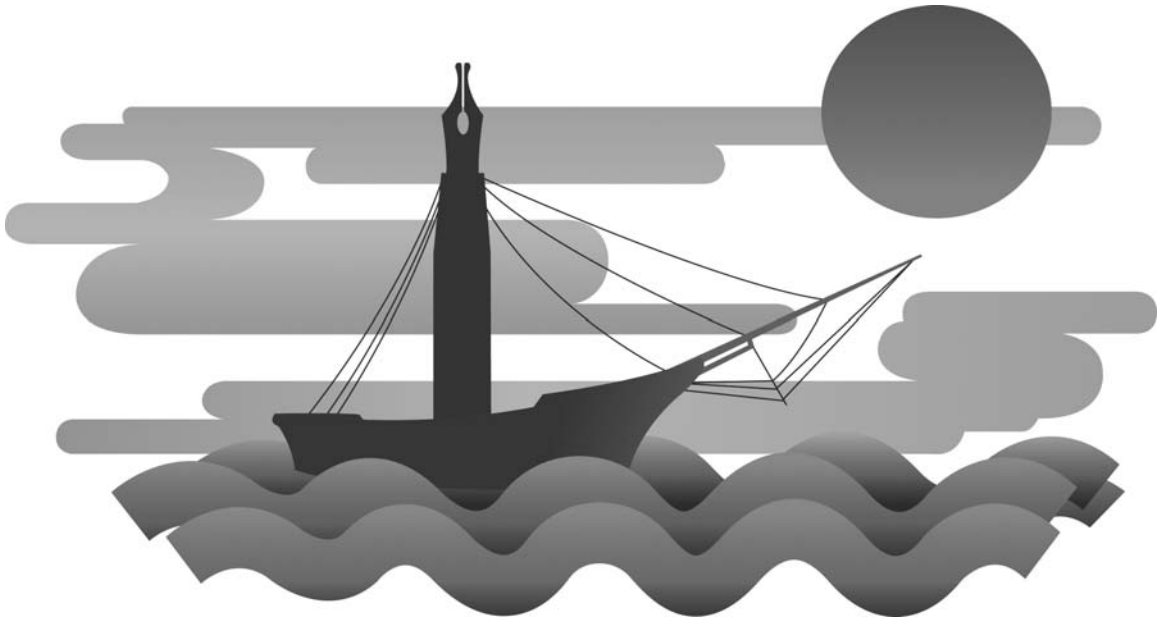
이미지의 흐름에 공간적 깊이와 서정적 울림을 더하고 있다. 하천은 언제나 흘러간다. 그 흐름은 때로 과거를 어루만지고 현재를 비추며 미래를 예감하게 한다. '사진으로 그리는 감성'은 2019년 5월 창립됐다. 사진을 좋아하는 1971년생 돼지띠 친구들의 첫 모임이 시작이다. 제1회 전시는 2021년 '내 안의 감성을 깨워라', 제2회는 2022년 '결', 제3회는 2023년 'SHOW', 제4회는 2024년 '나만의 프레임' 등으로 전시를 이어갔다. 관람자는 '흐름의 결' 전시에서 자신만의 기억과 감정을 되비추는 여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 내면에 조용히 스며들어 각자의 감성으로 다시 짓는 하천 이야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느 전주시의원의 소상공인 예산 논란

전주시의회 어느 의원이 지난 7월 28일 소상공인 예산 논란과 관련해 문화경제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은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은 주관기관 직원이 제가 운영하던 업체에 참여를 권유하며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참여 이후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민들께 오해를 드릴 수 있다고 판단해 참여를 중단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저의 판단이 부족했음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의원은 해당 사업 참여가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사업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였다"며 "참여업체가 임의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실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를 향해서도 "공공예산 집행에 있어 부정과 특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징계와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2023년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 예산이 전 의원과 배우자, 자녀,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